

우리회사,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나?

기업 '지속가능진단지표' 개발

지배구조 등 9개분야 '검진' ... 시범조사 결과 국내기업 평균 B~CC등급

최 근 매출액 등 기업의 재무적 성과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은 “우리 회사는 지속가능할까?”, “우리 회사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를 절실히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SYSA: Self-test for Your Sustainability)' 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SYSA는 지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시범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상위 20%는 최우수등급(AA) 및 우수등급(A)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국내기업 평균은 중간수준인 B~CC등급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지속가능경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리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업이 스스로 진단해 봄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유도하고자 SYSA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총 9개 영역, 104개 문항으로 구성된 SYSA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세부 요소를 총망라했다.

특히, 국제규범으로 널리 알려진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주요 글로벌 이

〈9개 영역별 주요 지표 내용〉

영역	주요 지표
가치와 리더십	· 우리회사의 CEO 및 경영진은 자신의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종업원과 공유하고 솔선수범한다.
지배구조	· 우리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 보장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주주 대화채널을 마련,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윤리경영	· 우리회사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사회책임 1 - 종업원	· 우리회사는 성별, 인종, 연령, 신체장애 등에 따른 채용·승진·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정책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회사는 비정규직 부당 대우 방지 정책을 적극 운영한다. · 우리회사는 업무와 개인생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리회사는 여성보건 및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 우리회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
사회책임 2 - 협력업체	·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사회책임 3 - 고객	· 우리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회·윤리적 이슈를 적극 고려한다.
사회책임 4 - 지역사회	· 우리회사는 지역사회 공헌에 투입된 재원을 정기 집계한다.
환경경영	· 우리회사는 환경목표 달성 성과를 공시한다.
종합성과	· 우리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관련된 국제규범을 존중한다.

〈 주요 문항 〉

- ① (종업원) 우리회사는 성별, 인종, 연령, 신체장애 등에 따른 채용·승진·교육기회의 차별 금지 정책을 적극 실시한다.
- ① (협력업체)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① (지역사회) 우리회사는 사회공헌에 투입된 재원을 정기 집계한다.
- ① (환경) 우리회사는 환경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시한다.

슈에 한국적인 지표를 가미했다.

상기 지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기업 스스로의 평가와 자성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향후 테스트 기업이 늘어나 데이터가 축적되면 규모별·업종별 평균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SYSA 개발을 총괄한 신철호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계 전반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본 지표는 지속가능경영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실천 제도 및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략개발에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SYSA 시범 테스트에 참여한 포스코 기업윤리실천사무국의 장영복 차장은 “자가진단지표는 우리회사 경영의 전 부문을 포괄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회사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약점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 B2B 업체 ‘엔투비’ 경영지원팀 방호남 팀장은 “윤리경영, 환경경영은 평소 실천해왔던 것이라 익숙했지만 지역사회 영역의 지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러한 지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제도를 새롭게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호원 산업정책국장은 “SYSA 개발 목적이 기업의 우열을 따지는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기업의 건강을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 밝히면서, “그간 외부평가를 통한 지속가능경영평가는 체면과 부담감으로 ‘눈치보기’, ‘부풀리기’가 불가피하여 정확한 수준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 자가진단지표는 기업 스스로 매우 손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4일 정계·경제계·학계·노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출범한 ‘CSR포럼’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속 확산하고, ISO 국제 표준화(ISO 26000) 논의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CSR 가이드라인’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SYSA는 지표개발 용역을 수행한 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ips.or.kr)에 게재되어 어떤 기업이라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테스트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자사의 등급과 그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각 등급별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우수기업군과의 비교도 가능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회사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 부분인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관련문의 :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영연구팀 - 전화 (02)456-5588(내선번호 650, 340) ◀

※한국형 CSR가이드라인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RI, BitC 등 CSR 보고 지침과 ISO SR표준화 작업진행 상황 등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방법